

# 노동부 장관, 폭염 절정 “중복”에 “물류현장 불시 점검”

- 쿠팡 동탄물류센터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보건 조치 준수토록 개선지시

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위기경보가 ‘심각’ 단계인 가운데 7월 30일(수) 13:30경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했다. 이는 지난 22일(화)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이은 「안전한 일터 프로젝트」 두 번째 현장점검이다.

해당 물류센터는 다층식 선반구조(메자닌 랙; Mezzanine Rack)로서 내부 공기 흐름이 정체되어 작업장 온도가 쉽게 올라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특징이 있다. 이에 시원한 물 제공, 냉방장치 설치·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\*」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.

\* 5대 수칙: ①시원한 물, ②냉방장치, ③휴식(2시간마다 20분 이상), ④보냉장구 지급, ⑤119 신고

점검 결과,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냉방·환기시설 확충, 휴식시간에 노동자들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냉방장치와 시원한 물이 완비된 휴게시설(Cool Zone)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.

아울러 노동자의 사소한 온열질환 증상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시원한 물과 주기적인 휴식 부여, 119 신고 등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을 준수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.

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“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투자다.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 구조상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건 예측 가능하다. 연일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근무장소와 가까운 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.”라고 당부했다.

특히 “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「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」이 의무화되었고, 35도 이상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므로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부여를 권고하면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”을 요구했다.
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안전일터추진단	책임자	과 장	김경민 (044-202-8880)
		담당자	서기관 사무관	김정탁 (044-202-8881) 이근배 (044-202-8882)
담당 부서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	책임자	과 장	신욱균 (044-202-8890)
		담당자	사무관 사무관	나상명 (044-202-8893) 박현건 (044-202-8891)

